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48호 현대불교
2009년 9월 9일(음 7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우리의 생활 속에 바로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또 제가 이렇게 지내 오면서 보니까 말입니다, 글썽 천도가 왜 생겼나 했더니, 천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 있는 대로 이 도리를 가르치시고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있는 대로 힘이 없이 설법을 하셨는데, 49년이라는 건 무슨 어느 날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49년이라 하시다. 그렇게 설법을 하고 그렇게 행으로 보여 주셨고, 말로 듣게 해주셨고 귀가 뚫어져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이 조잡이 조잡이 붙어 가지곤 사대가 흠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영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이구, 아이구! 나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웬 줄 아십니까?

이 도리를 몰라서 착이 잔뜩 있으니까, 욕심을 잔뜩 그냥, 내 몸뚱이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친척 집으로, 내 자식들 집으로, 친구 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도를 안 하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대로 흠어져서 없어지면 자기의 그 고통이 전부, 인과로써 맺어진 인연들이, 그냥 요만한 것들이 전부 화해서 큰 근중으로 변해 가지고, 또 인간의 인연을 맺은 인과는 그냥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전부 늘비하게 날려 있으면서 자기가 그리자처럼 자기를 쫓아다니니 어찌 한 발짝인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제 첫째 대목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은 만날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고,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천도가 이래서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들이 귀찮게 무슨 천도야, 천도가, 만날 그냥 음식을 괴어 놓고 열불하고 뭐 해 가지고 오면 만날 잔뜩 벌여 놓고서 하고 그러는 데...' 그전에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그런 생각을 하지마져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만날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가지 않습니까? 글썽, 모두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요, 살아생전처럼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강에 가서 배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글썽,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백 생을 기다린들 그 배가 오겠습니까? 자기가 배가 없다는 것을 알면 한 생각 끄덕하면 한 찰나에 건너갈 수 있고, 건너가자니 내 마음이 공했는데 강이 어디 있으며 건너갈 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건너간다는 말을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영혼들이 건너가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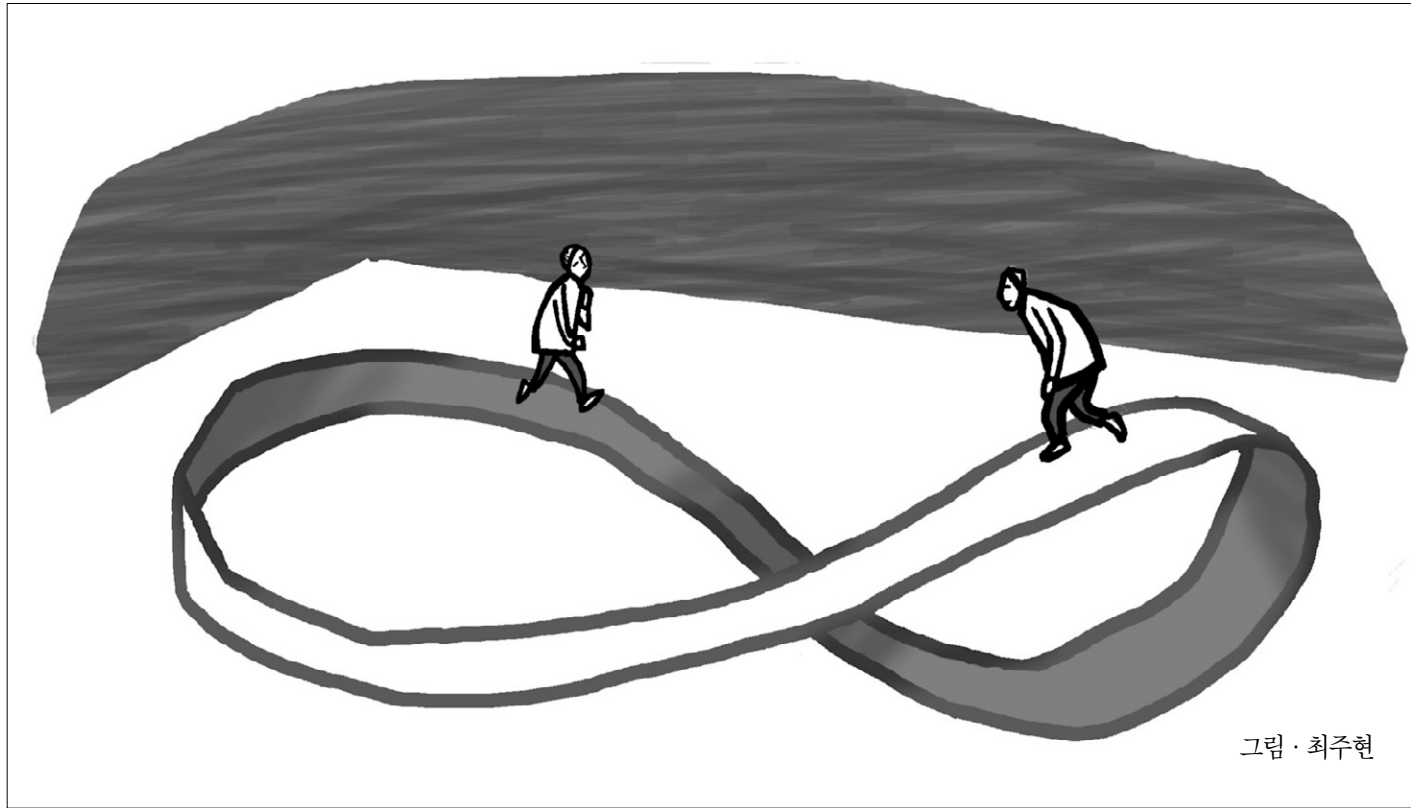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해서 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죽어 서 있나 말입니까? 아, 그래서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혼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자기가 몸이 없다는 것을 알면 빠져 죽을 것도 없고 그럴 텐데 그 영혼은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도 없죠. 참 묘한 도리입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이 자기를 출랑 벗겨 놓을 수도 있고 출랑 씌워 놓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지요.

세번째는 이 세상 우주 천지가 전부 불바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생명들이나 은하게 육성이든 별성이든 유성이든 행성이든 전부 불바퀴가 아닌 것이 없지요. 불성 아닌 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불성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율동을 하기 때문에 그 율동을 하는 대로 에너지가 배출되죠. 불바퀴로 배출이 된단 얘기도, 왜냐하면 불바퀴는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도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성도 전부 한두 군데 집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네가 저기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것이 뭐냐? 자꾸자꾸 발전을 하고, 죽고 살고 발전하고 이렇게 행하고 돌아가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로

배출이 되느냐 하면 바로 불바퀴로 배출이 됩니다. 가만히 그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불바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옹도대로 끌어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력을 발전소에서 끌어 쓰는데, 크면 큰 대로 끌어 쓰고 작으면 작은 대로 끌어 쓰죠? 그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성이 별성대로 그 마음에 따라서 별성들이 바로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면 율동을 하고 율동을 하면 바로 배출이 되고 에너지가 되죠. 이 우주 삼라천세계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고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 속을, 불바퀴 소용돌이를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들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마음들은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있는 줄 알고 타 죽을까 봐 애쓰는 그 점을 좀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 법칙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모두 늘비하게 늘어서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1단계와 또 물에 빠져 죽을 까 봐 못 가는 2단계와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

는 3단계가, 단계 없는 단계가 있던 말입니다. 내 한생각을 돌리면 1단계도 없고 2단계도 없고 3단계도 없었던, 그렇게 해 가지고서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없고, 그런 고통머리를 짊어진 채 영원토록 세세생생에 떠돌이면서 그저 만날 헛바퀴 돌듯 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른다면 죽어서도 모릅니다. 만약에 살아서 열반이라는, 이름해서 열반이라는 그 자체를 못 넘어선다면 우리는 죽어도 열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가야 하고 남한테서 무슨 행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나쁘다 좋다,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자기가 벌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쁘고 좋은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공부라는 것

도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라고 이름만 불러 놓고 진짜 행을 안 하고 실력을 안 하고 체험을 안 하신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 부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열반하셨다고 해서 안 계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흙 하나, 물 한 컵 이것도 바로 부처님이 계신 그 증명이십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오신 것도 없고 가신 것도 없습니다. 수만 명, 아니 수억만 분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한 분이 그 한 분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있죠. 공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삼십이상을 구족함으로써 삼십이승이어서 수많은 생명들에 응해 주십니다. 하도못해 뱀 새끼가 "아이구, 부처님! 날 좀 도와 주십시오." 해도 뱀 속에 들어가서 한마음이 돼 주시는, 찰나에 응해 주시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만 한생각에서 우주 법계를 두루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것이요, 귀가 될 것이요, 바로 한마음이 전부 그걸 두루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황설수설, 어머니처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체계 있게 하지 못하고 말이 서툴러서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잘 참작해서, 바로 여러분께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진짜 한 걸음 떼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멧쟁이들이 되어 될 것입니다.

꼭마르든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마시지 '내가 이 물을 마셔야 옳을까, 안 마셔야 옳을까?' 이라고 마십니까? 똥이 급해 죽었는데 '내가 똥을 뉘어 옳을까, 안 뉘어 옳을까?' 하고선 계산하고 똥을 뉘니까? 이 모두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우리들의 법이 없다면, 생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석존이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석존이라 할지라도 나는 석존이고 깃털머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시되 내 가족 속에, 내 고향 속에 넣고 참으로... 올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이럴 수 있는 그 마음이, 첫째에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한마음' 하면, '원' 하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큼 나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부처요 한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 바로 문수요 몸을 움추려뒀다 하면 보현, 화신이니라." 화신 말

26면으로 계속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도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설법·화술

최면, 설법, 강의, 축사 등

1. 교육일정

- ◆ 개강일자 :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7시~9시까지
- ◆ 모집인원 : 종합반 선착순 10명 개인지도반 수시접수
- ◆ 교육비용 : 35만원, 2개월과정(8회)

2. 교육내용

- ◆ 설법, 강의, 축사, 회의 토론 등, 실습
- ◆ 말에 힘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실습
- ◆ 대인 불안 공포증 없애기,
- ◆ 음성언어, 제스처, 시선 처리 등, 실습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피드백

3. 지도교수 김철희 박사 40년 노하우 직접지도

-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 한국산업기술문화협회 법인 이사장
-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문의 및 신청

H·P 011-248-1567
TEL 02)747-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8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 입교일시 :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 수강자격 : 식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 수 강 일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서진주 10에서 5분거리>
- ◆ 카페인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 ◆ 문의전화 : 055)747-8419

영남범패불음원

대한불교 비구니조계종 입종을 환영합니다

첫째, 본 종단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도의국사를 종조로 소의경전은 금강경 육조단경으로 하고 기타경전은 제한치 아니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종도님들께서 현재 가지신 신분과 재산 등 기록권은 그대로 인정하며 종단운영은 맑고 투명하게 종도님들과 더불어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최초의 파자파티(비구니) 스님이 남존 여비의 어려운 시대상황을 극복하고 출가하여 지금의 비구니스님의 실리자를 마련하였음을 강하게 믿습니다.

파자파티비구니 스님의 뜻을 받들고, 양성평등시대에 걸맞는 비구니스님의 입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불자들의 포교를 확대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하시길 비구니스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입 종 안 내

- ◆ 종단명 : 대한불교 비구니 조계종
- ◆ 종교단체등록 (26111-00154)
- ◆ 비영리법인고유번호 (620-82-67363)
- ◆ 총무원 : 울산광역시 중구 대운동 583-20번지
- ◆ 연락처 : 052)225-7378 / FAX 052)277-0194 H.P 010-7135-7378